



2022 광주자원봉사자대회 강기정 시장이 27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광주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 첫 발 뗐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건립 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오랜 지역 숙원사업인 새병원 건립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사업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지난 8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탈락된 후 두 번째 도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전남대병원은 노후화된 병원의 물리적·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형 의료시스템을 구축, 수도권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건립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월 새병원건립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18차례의 회의 끝에, 전남대 학동캠퍼스 부지에 새병원을 건립키로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1년간 사전타당성 분석에 나선 결과 ▲정부 공공의료 강화 정책 ▲지역

사회 중심의 시행 정책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 계획 등 정부정책 및 상위 계획 등과 부합되고 경제적 타당성(B/C) 역시 2.2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 두 번째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은 1300병상, 연면적 27만㎡(8만1675평)에 달하는 규모로 오는 2034년까지 11년간 1조2150억원(국고 3040억원, 자부담 91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2단계에 걸쳐 신축할 새병원은 1단계(동관 건물)로 2030년까지 전남대 대 학동캠퍼스와 전남대 간호대학 부지에 700병상 규모로 신축건물을 완공한 후 기존 1·3동의 진료기능과 어린이병원(6동), 부속동(2동)의 진료기능을 이전, 개원할 계획이다. 전남대병원과 광주·전남지역민들의 새병원 건립 요청에 광주시와 여당 및 야당도 힘을 보탤다. /김도기 기자

## 17년 표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급물살

서진건설 "광주발전 대승적 결단"...상고 포기

광주시 '제3자 공모제' 방식 추진할 듯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해 오랜 기간 제자리 걸음에 그쳤던 어등산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최대 걸림돌인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제3자 공모제'를 도입, 어등산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서진건설은 27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광주시의 요구를 아무런 조건없이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2·3면

을 위해 2019년 3월, 좋지 않은 조건임에도 공모에 참여했고 4개월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광주시, 광주도시공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공모지침에도 없는 48억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하고, 합의내용이 막판에 깨지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 때문에 3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지루한 소송에 매달려왔다"고 말했다.

서진 측은 그러나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어등산개발이 또 다시 장기간 표류할 수 밖에 없는데다 광주시민의 상실감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고 여부를)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광주발전을 위해서도 또

다시 재판을 이어가기보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상고 포기 배경을 밝혔다.

광주시는 2019년 서진건설을 대표주관사로 하는 (주)어등산관광개발피에프브이 컨소시엄(가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이후 협상 당사자인 도시공사가 서진과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했으나, 시와 도시공사가 해석한 총사업비를 서진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결국, 광주시가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전격 취소하자 서진 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서진은 잇따라 패소했다. 서진 측은 항소심 선고 당일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내부

고민 끝에 이날 결국 상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는 서진과의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제3자 공모제를 도입, 어등산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8월 신세계그룹은 어등산부지에 정통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005년 시작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민간사업자가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당초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 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와 골프장·경관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17년째 표류하면서 현재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다. /조일상 기자

## 완도에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예타 통과'

국비 6억원 확보...2023년 기본계획수립 본격 추진

전남도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가운데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국비 6억원을 확보해 본격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국립난대수목원'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비 1475억원을 들여 전남도 산하 완도수목원에 건립한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국·공유지 토지 교환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국립난대수목원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항이자 민선8기 정책과제다. 수목원 기능 최적화를 위해 기존 완도수목원 기반 시설을 적극 활용한다.

완도수목원을 보전·복원지구, 연구·시립지구, 전시·관람지구, 서비스·교육지구 등으로 재배치하고,

연구기능 강화에 이어 새로운 전시·관람·교육 서비스 기반을 확충한다.

특히 완도수목원의 지형적 한계로 전시·관람이 하단부에 있는 전시온실, 산림박물관 등 시설 위주로 이용된 점을 보완해 기존 입도를 따라 모노레일을 도입해 수목원 전시·관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인공환경조성실(바이오트론)을 조성해 난대수목별 생육 특성을 연구해 공개한다.

206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수목도 연구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 가능성도 수행한다. /박재배 기자

전남 경제위기·가뭄대응	2면
정부, 1373명 특사	3면
빌라왕 피해자 속출	4면

부스/농막/컨테이너 맞춤형제작

안되는건 없습니다  
원하는대로 제작해드립니다

## MK하우징

설치 예정날짜와 타입만 정해서 연락주세요



타입1. 컨테이너 3X6



타입2. 컨테이너 3X9



타입3. 농막 3X6



타입4. 농막 3X9



타입5. 흡연부스



맞춤제작

☎ 010-6265-0057

TALK

